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도행전 10:25-26, 34-35, 44-48 제2독서 요한1서 4:7-10 복음 요한 15:9-17

말씀 < 사랑밖에 난 몰라 >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흔히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사랑의 결핍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 공동체와 유리된 삶을 살곤 합니다. 한편 넓게 본다면 구원의 역사에서 하느님 사랑을 방해해온 것은 욕심과 교만, 시기과 질투같은 것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부정적 감정들은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낳고 그것이 쌓여 혐오와 차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에겐 피부 병자나 이방인이, 중세엔 마녀가, 조선시대엔 천주쟁이가, 일제강점기엔 조선인들이, 한국전쟁 후엔 북한 주민이 그런 혐오와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에겐 동남아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혹은 난민, 성 소수자가 그러하고, 코로나시기 서구사회에선 동양인 전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그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은 알고 보면 큰 위협이 되지 못하는 상대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지막지하게 사악한 존재로 둔갑시킵니다.

하느님이 마냥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가해자들은 뼈도 못 추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힘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힘이나 지위로는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언정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느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내 권리, 내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연약한 아기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십니다. 내 뜻을 강요하지 않고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자녀에게 집착하고 무언가를 강요할수록 사랑을 기대하긴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발은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배려란 내 뜻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나이 지긋한 형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교육에 참여한 뒤 자신이 그동안 가족에게 너무 권위적이었음을 깨닫고는 거기서 배운대로 아내와 자녀에게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감정대호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하느님 닮은 사랑을 실천했지만, 가족들은 그런 가장의 모습에 당황하고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대로 하라고 다그치는 바람에 그분은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실패하긴 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하느님과 일치하기 전까지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다른 감정들이 끊임없이 몰려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니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5월 11일(화)	부활 제6주간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2,380.00 \$ 1,052.00
5월 12일(수)	부활 제6주간 수요일	아침 7시 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260.00 \$ 177.00
5월 13일(목)	부활 제6주간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118.00 \$ 166.00
5월 14일(금)	성 마티아 사도축일	저녁 7시 30분	기타수입	\$ 1,700.00
5월 15일(토)	부활 제6주간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특전)	합 계	\$ 5,853.00
5월 16일(일)	주님 승천 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4명 성인: 124명
교무금 봉헌자	오중신(1-12월) 김도철(4-7월) 구준모. 이수동. 백정심(5-6월) 장현철(4-6월) 염상보(2-6월) 이복임(1-4월) 박재례(2-3월) 윤영자. 김규철. 김상돈. 남필레. 이서향. 지복원. 박원상. 안강순 류승교(5월)			

◎신앙생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 욥시21:5)

미사때 이루어지는 동작의 의미

우리는 미사를 봉헌할 때 다양한 형태의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해왔던 동작이지만 각각의 동작은 전례 안에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예절이며 깊은 만남의 표현 방식으로서 아래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 몸에 익어서 익숙해진 나머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동작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시금 마음을 모아 정성껏 몸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성호를 그음

성전에 들어가거나 미사 시작 때 그리고 복음을 읽기 전에 성호를 긋는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신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기도하는 손(합장)

두 손을 모으는 것은 경건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의 표현으로서 하느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일치를 소망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과 뜻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표현이며 더불어 순종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3)일어섬

윗사람을 향한 존경과 공경의 표시로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하느님의 자녀가 갖는 자유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희망과 믿음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4)앉음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자세로서 안정된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의 깊게 듣고 깊이 생각하며 생각한 것을 삶으로 옮길 결심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무릎 꿇음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나의 잘못과 악함을 인정하는 자세이며 동시에 하느님께 간절히 무언가를 청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공경심과 경외심을 드러내며 동시에 회개한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6)고개 숙임

고개를 숙이는 건 하느님을 향한 공경과 겸손을 드러내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비롯한 성물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때 이 동작을 취합니다. 이 밖에도 참회하는 마음을 드러내거나 무언가를 간청할 때 고개를 숙이며 사제가 전례중에 기도할 때 이에 참여 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숙입니다.

(7)팔을 벌림

사제가 취하는 자세로서 하늘을 향해 마음을 들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례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모두의 마음과 기도를 모아 하느님께 바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제는 팔을 벌려 기도합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욱. 안나/원정은. 카타리나/백정심. 막달레나
기은희. 마리아/김나미. 로사/김옥륜. 세실리아
추소연. 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 수산나
김초지. 마리아/이규청. 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 오티리아/박모란. 글라라/고공자. 벨라뎃타
신용경. 그레고리오/이상일. 마리아/남필레마리아
신상철. 사무엘/이호순. 수산나/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울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여길선 요안나 영혼	김근수요한가족	생	김상돈 도미닉 부제님 건강	조영진안드레아
연	김일준 영혼	김도철베드로	생	허춘도 토마스 신부님 영육건강	최글라라
연	전기레 베레나 영혼	조영진안드레아	생	김금순, 김명희 수산나 영육건강	김미해세레나
연	전기레 베레나 영혼	윤태욱안나	생	김단비 엘리사벳, 김송이 데레사 영육건강	김경숙 프란체스카로마나
연	최원철 암브로시오 영혼	김미경마리아막달레나	생	김대현 앤드류, 김아린 릴리안 가족들 영육건강	박모란글라라
연	박동환 베드로, 이순애 엘리사벳 정순음 안나 영혼	유정임가브렐라	생	김상범 히지노, 기은희 마리아 가정	진엘리사
연	유재표 베드로, 최두능 안나	유정임가브렐라			
연	민재행 데레사 영혼	손창식돈보스코			

◎ 5월엔 ◎

계절의 여왕 5월엔 제게도 작은 기쁨 몇 개 있나이다
어린이날 손주에게 무슨 선물 줄까 고민하는 기쁨
어버이날엔 아이들 모여와 오랜만에 만나는 회우의 기쁨
그리고 성모님 밤에 가끔 시 한 편 써서 바치는 기쁨
장미 한 다발 마음으로 바치는 기쁨도 있나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신록에 눈 멀어 산과 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 그리워 밤 이슬에 젖어 오실 것만 같은...

홍윤숙. 데레사 시인

간
장
종
지

●공동체 소식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목시21:5)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을 공경하며 신앙과 순종의 삶을 본받도록 노력합니다.

1.소토주교님 본당방문

일시:6월6일(일) 오전11시.교중미사
목적:본당 신부님 부임미사 및 견진성사 집전

2.소토주교님, 견진성사 집전 안내

일시:6월6일(일)오전11시.교중미사중
신청:9일(일)까지
대상:세례받은지 3년이상, 16세이상
제출서류:신청서(사무실비치) 및 세례증명서
견진신청자는 대부모를 지정하셔야 하며, 세례명도 변경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견진대상자 교육

일시:9일(일)오전11시.교중미사후.성당

4.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16일(일)오후2시경 출발
참가자:신부님,부제님,사목회장 등 회장단

5.성모의 밤 행사 안내

일시:26일(수)저녁7시30분.성당
준비물:(개인)목주.초
(구역/단체)꽃.화분.쌀
꽃은 가급적 화분으로 해 주시면
성당 조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사회복지부(사랑의쌀 50포)

6.St.Mary's 천주교묘소 안장예절 신청

선종하신 가족을 한국세션에 안장을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연령회장님께 신청바랍니다.
신부님께서 집전하실 안장예절 일정은
신청자들과 상의 후 공지하겠습니다.

7.감사합니다.

감사헌금:최정신.데레사(\$500)

8.2021년판 신자 주소록 광고모집 안내

신청:5월중순까지 (사무실)
금액:\$150(5cm*5cm), \$200(10cm*5cm)

9.2021년판 신자 주소록(인쇄용) 최종확인 요청

마감일자:5월16일(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쇄를 원하지 않거나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락바랍니다.
(장현철 엘리야 총무부장 혹은 사무실)

●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개설 안내

입금은행:Wells Fargo 예금주: ST.J.H.C
Account No.:360 184 1897

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사참석 및 모임에 관한 새로운 교구지침

백신접종의 증가로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①미사참석인원과 지켜야할 사항은 기존지침과 동일합니다.
- ②주일학교, 예비자교리반, 견진교리반, 전례부복사단, 사목회, 재정위원회는 5월1일부터 허용됩니다.(단,음식나눔은 금지합니다.)
- ③6월15일 부터는 모든 기도모임, 레지오마리아 사회복지모임 등 모든 모임은 가능하지만 본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음식 나눔은 금지합니다.
- ④새크라멘토 카운티가 Orange Level로 완화되면 미사참석명단 작성은 중단되고 신자간의 거리두기도 좀 더 가까워집니다.
- ⑤새크라멘토 카운티가 Yellow Level로 완화되면 성당안에서 거리두기도 없어집니다.

우리모두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답송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전례봉사	부활제6주일(5월9일)	주님승천대축일(5월16일)	성령강림대축일(5월23일)	삼위일체대축일(5월30일)
미사해설	김은영.폴리나	김선영.플로라	정미정.루시아	오민정.크리스티나
복사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최진호.다니엘	최준우.루카
헌금위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광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목시 21:5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 (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 (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 (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 (스테파노)
김옥기 (클라라)
(530)771-7715
204-8878

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 (안나)
(916)600-1936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 #P)
최병엽 (바오로)
(916)363-2345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 (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사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 서주연 (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 LA K-TOWN

Print N Signs

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

장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Suzie Hair World

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

**성당
FM주파수
107.9**
(야외미사)

성당제출용
CHECK 발행할 때
**Payee to:
St.J.H.C**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